

콩 생산 ‘반토막’...전남 식량작물 생산량 역대 최저

통계청 식량작물 생산량 조사...전남 전년비 15.5%↓ 감소 폭 최고
5대 식량작물 미곡 5.1%·보리 36.8%·두류 51.2%·서류 82.6% 감소
생산면적 20만1216ha→18만6397ha 1만4819ha 감소 역대 최저기록

코로나19 시대에 식량자급이 국가안보 차원의 핵심과제로 제기되는 가운데 쌀, 보리, 밀 콩 등 식량작물의 전남 생산량이 지난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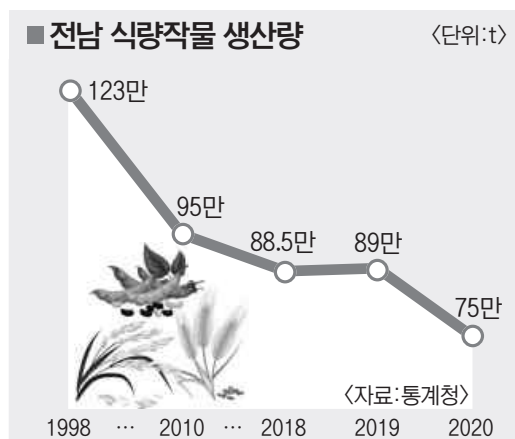
14일 통계청 ‘식량작물 생산량 조사(정국)’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5대 식량작물(미곡·맥류·잡곡·두류·서류) 전남 생산량은 75만2125t으로, 1년 전(89만338t) 보다 15.5%(~13만8213t) 감소했다.

지난해 전남 식량작물 생산량은 관련 통계를 낸 지난 1998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지난 2012년(79만8897t)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80만t 선을 내주기도 했다. 전년 대비 생산량은 15.5% 감소했는데, 이 같은 감소율 역시 통계를 낸 이래 가장 컸다.

전남 식량작물 생산량은 지난 1998년 이후 22년 동안 8개년(2000~2001, 2004, 2008~2009, 2013, 2015, 2019년)을 제외한 나머지 해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5대 식량작물 전남 생산면적은 지난해 최저를 나타냈다. 지난 2019년 20만1216ha에서 이듬해 18



만6397ha로, 1만4819ha(-7.4%) 줄어 들었다. 1년 새 광주시 북구(1만2028ha) 1.2배 면적이 사라진 셈이다.

작물별로 보면 지난해 전남 미곡(쌀) 생산량은 68만7812t으로 역시 통계를 낸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5.1%(-3만7282t) 감소했다. 하지만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2139ha(1.4%) 증가한 15만6230ha로 집계됐다.

보리, 귀리, 밀 등을 통틀어 말하는 맥류 생산량은 4만5510t으로, 전년(7만2001t)보다 36.8%(-2만6491t) 급감했다. 두류 생산량은 8282t으로 전년(1만6954t)의 반토막(-51.2%) 수준이었다.

고구마와 감자를 비롯한 서류 생산량은 1만521t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작전 해인 지난 2019년 생산량이 6만460t으로 사상 최고로 많았던 것과 대조된다. 서류 생산량 감소율은 82.6%(-4만9939t)으로 집계됐다.

식량작물 급감 추세는 전국 통계에서도 확인된

다. 지난해 식량작물 생산량과 재배면적은 각각 378만5058t과 85만5409ha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생산량은 1년 전보다 13.5%(-58만9841t) 감소했고, 면적은 7.1%(-6만5882ha) 줄어 들었다. 식량작물 생산량 감소율도 역대 최저를 나타냈는데, 농도(農道) 전남의 감소 폭(-15.5%)이 더 컸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식량자급 목표와 생산량 및 농지면적 추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에 세운 2022년도 쌀, 보리, 밀 콩 등의 식량자급 목표는 55.4%, 생산 목표는 521만t이다.

2019년 기준으로 1ha당 4.9t이 식량작물이 생산됐기 때문에 2022년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106만ha의 경작지가 필요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지난 12일 열린 고향주부모임 전남도지회 정기 이사회에 참석한 박서홍 농협 전남본부장과 김남생 지회장 등 30여 명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전남 행복시대 만들기’ 앞장·봉사활동 등 이웃사랑 실천 다짐

농협 전남본부, 고향주부모임 전남도지회 정기이사회 개최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여성 소비자단체 고향주부모임 전남도지회와 지난 12일 지역본부 2층 대강당에서 2021년 전남도지회 1분기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향주부모임 시군회장·농협담당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사회는 2020년 주요사업 보고 및 결산과 함께

2021년 사업계획(안)을 심의했다.

지난해 사회공헌활동 우수조직으로 목포농협 주부대학동창회, 장성농협 주부대학동창회, 고향주부모임 함평군지부를 선정하고 시상했다.

전남도지회는 2021년 ‘영산강유역 수계정화활동’과 ‘양성평등교육’ 등의 사업을 통해 ‘전남 행복시대 만들기’에 앞장서고 아·미용봉사, 밀반찬나

눔 등의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이웃사랑을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박서홍 전남본부장은 “고향주부모임이 지역사회와 농촌사랑 운동을 선도하는 여성단체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며 “고향주부모임과 함께 여성권의 신장과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aT, 화훼농가 돕기 꽃 나눔 행사 진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12일 광주·전남에서 재배된 꽃을 지역 취약계층 100가구에 전달했다.

공사는 이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노사

가 힘을 모아 12일 ‘꽃 나눔 사회공헌’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행사를 통해 광주·전남 화훼농가가 직접 재배·제작한 꽃다발이 광주시 광산구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우울증 환자 및 발달장애인 등 취약계층

100가구에 전달됐다.

이번 활동은 KT, SR 등 국내 22개 기업의 노사가 연대한 ‘기업 간 노사공동 나눔협약체’(UCC) 화훼농가돕기 캠페인의 하나로 추진됐다.

공사는 지난해 6월 광산구와 업무협약을 맺고 영구임대주택 주민을 대상으로 먹거리 기부 등 사회공헌활동을 벌여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블루베리 농가 돕기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강형구)와 봉랑농협(조합장 정상운)은 최근 광산구 한 블루베리 농가를 찾아 잡초제거를 도왔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백설기로 사랑 전해요”...농협 쌀 소비 행사

꽃·우유 나눔도

쌀 소비를 늘리자는 ‘백설기 데이’(14일)를 맞아 농협 지역본부들이 홍보 행사를 벌였다.

농협 전남본부와 광주본부는 지난 11일 각 지역본부에서 ‘제10회 백설기 데이’ 행사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하는 백설기 데이는 지난 2012년 제정된 뒤 10회째를 맞았다.

과자업체에서 만들어진 ‘화이트 데이’ 대신 백설기 데이를 즐기면서 우리 쌀을 더 많이 먹자는 취지에서다. 새하얀 백설기는 우리 민족 고유 음식으로, 연인·가족 간 소중한 순수한 사랑의 의미한다고 농협 측은 설명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이날 박서홍 본부장과 이재식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대표이사, 서옥원 상호금융리스크본부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행사를 진행했다.

광주본부 행사에는 강형구 본부장과 김석찬 농협은행 광주영업본부장, 김익찬 평동농협 조합장(광주시 쌀조합공동사업법인 이사회 의장) 등이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는 화훼농가와 코로나19 의료진을 응원하기 위해 꽃과 우유를 함께 나눴다.

‘덕분우유’는 농협하나로유통과 남양유업의 합동 기획상품으로, 판매액의 5%를 코로나19 의료진에 후원하는 상품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